

문화연구의 방법론으로서 ‘젠더번역’에 대한 탐색

태혜숙*

〈국문초록〉

이 논문은 문화연구의 방법론으로서 ‘젠더번역’을 제안하고 그 이론적 방법론적 윤곽을 그려보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그 작업을 위해 먼저 ‘번역’을 원본에 의존하는 부차적인 것으로 보는 경향들이 비판되며, 발터 벤야민, 자크 데리다, 호미 바바, 로버트 영의 문화/번역 이론들이 검토된다. ‘문화번역’의 맥락에서 그들의 진전된 논의에도 불구하고, 젠더의 문제들은 일관성 있게 생략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논문에서는 먼저 번역과 젠더를 연결하는 두 가지 방식인 ‘번역의 젠더화’와 ‘젠더화된 번역’을 살펴본다. 그 결과 ‘번역의 젠더화’는 그 역사적 현상을 비판하는 데 머물고 있으며, ‘젠더화된 번역’은 고려중인 텍스트들에 나타나는 젠더화된 정체성의 양상들을 언급하는 것으로 끝난다. 이러한 한계들은 ‘젠더번역’과 같은 새로운 개념을 창안하도록 우리를 자극한다. 이 개념은 젠더라는 인식소를 번역에 집요하게 개입 시킴으로써 ‘젠더’와 ‘번역’을 동시에 비판적으로 재구축하는 이론적 방법론적 지평을 우리에게 제시한다. 가야트리 스피박의 뱅골 소설 「젓어미」 읽기는 문화번역이라는 전복적 행위를 젠더라는 중단 없는 인식소와 결합함으로써 ‘젠더번역’의 윤곽을 예시한다.

주제어: 문화번역, 젠더, 젠더번역, 문화연구, 「젓어미」

* 대구가톨릭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heasookt@hanmail.net

『젠더외문화』 제6권 1호(2013) pp. 83-107

© 2013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1. 번역과 젠더의 만남이라는 문제설정

인류의 역사는 다양한 민족어들 사이의 소통을 넓혀온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소통의 양식으로서 번역은 인류의 문화를 진전시키는데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것이다. 그런데도 번역의 중요성과 가치는 오랫동안 제대로 탐색되지 못했다. 번역을 두 텍스트 간의 옮김이라는 좁은 의미로 규정하거나 원문을 모방하는 부차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오랜 관념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에 재조명된 벤야민(Benjamin)의 번역 개념은 데리다(Derrida)의 언어 개념에 영향을 미치고, 그 언어관은 바바(Bhabha), 스피박(Spivak), 영(Young)과 같은 포스트식민 이론가들의 문화 이해에 다양하게 활용된다. 이제 번역은 일대일로 텍스트를 번역하는 협소한 수준을 넘어 특히 식민주의로 점철된 인류의 역사와 문화라는 광의의 부문을 해명하는 범주로 확장되고 있다. 20세기 후반에 재정의되기 시작한 번역은 다른 언어로 된 텍스트 간의 번역을 넘어서 국가와 문화의 경계를 넘는 문화들 간의 접촉, 교류, 변형 양태를 가리키는 '문화번역' 개념으로 확장, 심화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번역의 문화적 선회'와 함께, 번역에 대한 재정의, 재개념화 작업의 중요성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점차 인식되고 있다.

번역은 언어, 문화와 연결되어 있으며 언어, 문화와 연속체를 이룬다. 언어는 각 민족의 문화를 이룩해가는 근본이며 계속해서 새롭게 번역되는 와중에 있다. 따라서 번역은 모든 언어와 민족이 감수해야 하는 몫이다. 그런데 언어-문화-번역은 또한 권력과 정치의 문제이기도 하다. 16세기 이후 근대 유럽의 팽창과 식민주의라는 역사적 맥락에서 폭력적이고 일방적인 방식이기는 했지만 타자들의 언어와 사상 사이의 접촉과 교류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한 과정 중에 서구적 근대성을 구성하고 이동시키고 확산시키는 기제로서 번역은 대대적으로 수행되기 시작했다. 서구의 식민지들은 제국의 언어로 표상된 서구=근대에 무임승차하여 정신 또는 사상의

식민화로 빠지거나, 그 식민화를 벗어나는 일환으로 번역을 통한 타언어와의 만남 자체를 거부하는 자민족중심주의를 견지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방향은 동전의 양면같이 겉모습에서만 다를 뿐 식민주의에 뿌리를 박고 있다는 본질에서는 같다. 식민지의 제도와 일상과 언어에 이미 속속들이 착근되어 있는 식민주의는 '자국어 중심주의'를 선포한다고 해서 일거에 지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¹⁾

번역과 식민주의는 애초에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다. 유럽 제국주의 맥락에서 식민화의 기제로 활용된 번역은 피지배민족을 계몽한다는 명분으로 여러 측면에서 피지배민족의 언어에 불평등한 권력을 행사한다.²⁾ 따라서 번역은 “주로 국경을 기준으로 언어와 문화들 간의 경계를 가르고 구분하면서 근대적 정체성의 범주를 구성하고 규범화”하는 핵심 기제이자, 그 정체성을 규율하고 통제하는 ‘체제’이기도 하다(박선주, 2012: 305). 그렇지만 번역에는 식민적 폭력에 저항한다는 정치성 또한 내포될 수 있다. 번역은 유럽에 의해 비유럽에 가해지는 일방적인 규제 하에 놓이기도 하지만 또한 유럽을 향해 비유럽의 ‘전복적인 협상력’을 발휘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기도 한다. ‘자국의 것’과 ‘이국적인 것’ 사이에 있는 결코 넘어설 수 없는 차이(리피르, 2006: 87)의 도전 앞에 인간은 자아의 선입견을 고수하고자 하는 자기동일성의 회로에서 벗어나 전 세계의 수많은 이질적인 것들과 대면하게 되며, 자아를 성찰하고 비판하는 자기발전과 쇄신의 기회를 열어갈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식민지와 제국의 관계에서도 여전히 열려 있다.

-
- 1)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수많은 개념어들이 근대 일본이 막대한 노력을 기울여 번역한 말이라는 것을 밝히는 데 인색한” 우리 학계의 경향에는 “일본을 증오하면서도 동시에 선망하는 이율배반적인 심리학이 작동”하고 있고, “번역을 경시하는 풍조”(정선대, 2007: 160)는 우리 학계의 뿌리 깊은 식민주의를 잘 보여준다.
 - 2) 그 불평등은 약간 도식적이기는 하지만 ① 양적인 면에서 피지배문화가 지배문화를 더 많이 번역하며, ② 지배문화는 피지배문화를 신비화, 타자화하여 식민적 차이를 배제하며, ③ 지배문화는 자체의 구미에 맞는 피지배문화의 작품을 번역하며, ④ 피지배문화의 작가가 성공하려면 지배문화의 요구에 부응하는 경향으로 나타난다(Robinson, 1997: 32).

번역의 가능성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번역을 원전(원저자)과 번역(번역가)에 오랫동안 전제되어 온 일방적인 위계관계 대신 “평등한 협업과 연대, 결속의 관계”(박선주, 2012: 293)로 보자는 주장을 낳기도 한다. 그러나 번역에 깊이 연루되어 있는 식민주의 역사의 구속력에 더 각을 세울 필요가 있다. 예컨대 한국의 식민지 근대만 봐도 일본을 통해 서구의 근대적 의식과 사상을 흡수함으로써 그것을 독립과 변화의 동력으로, 즉 서구적 근대를 넘어서는 새로운 사회 구성을 위한 가치형성력으로 전환시킬 여지를 갖는다고 손쉽게 상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한국의 식민지 근대 지식인들이 일본의 서양 번역에 기대어 근대적 사고능력을 형성하는 과정에는 한국어가 아니라 일본어를, 그것도 중국어로부터의 중역(重譯)으로 점철되어 있는 일본어를 통한 식민사의 채널이 처음부터 내장되어 있었고 “우리의 사유 자체가 이미 일제 번역어들에 의해 유도되고”(황호덕, 2007: 164)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식민담론 위에 설립된, 그러나 그 설립 지점을 간과하곤 하는 ‘우리말로 생각하고 쓰기’라는 언설”(황호덕, 2007: 165) 자체부터 심문해야 할 것이다. 이 언설은 “한국이라는 시스템의 전체성이 어떠한 외부와 연결되고 투쟁하며 재조정되어 왔는가에 대한 매우 현실적 물음”(황호덕, 2007: 165)을 요청한다.

우리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국한문체로 된 『대한국국제』(大韓國國制, 1899),³⁾ 『대한민국헌법』(1948년)에 엄연히 자리 잡고 있는, 오늘날과 같이 한글화된 한국인의 삶에서도 상위언어체계로서 무시할 수 없는 문화적

3) 『대한국국제』의 국한문체를 진일보한 것이며 그 용어는 일본의 명치헌법의 영향을 받은 점을 지적한 유진오는 한문에 대한 부정적 관점과 일제문화의 청산이라는 당위를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런데 유진오가 중심역할을 한, 1948년의 대한민국헌법은 과도정부 사법부의 미국인 고문인 우드월의 헌법안(The Constitution of Korea)을 상당 부분 번역한 것인데 이 헌법 역시 일본식 용어 투성이의 국한문체를 택하고 있다. 이 두 헌법이 일본어로부터 영어로의 이행인 것처럼 보이지만, 대한국국제 “第1條 大韓國은 世界 萬國의 公認하는 自主獨立 帝國(제1조 대한민국은 세계 만국의 공인하는 자주독립 제국)”이라는 규정에 나오는 명사 대부분이 서구 원천을 갖고 있으며 근대 일본이 생산한 번역어일 뿐이다. 그런 점에서 “한자로 표상된 언어의 내포 안에는 식민자의 언어로서의 일본어와 함께, 그러한 근대 일본어를 산출한 상위언어로서의 서구어”(황호덕, 2007: 171)가 이미 각인되어 있다.

무계를 지닌 한문자(漢文字)라는 “일종의 은폐된 기원”(황호덕, 2007: 166)을 인식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황호덕은 “한문으로부터 파생한 문체를 중심으로 하여, 한문적인 사고와 감각, 세계관까지를 포괄적으로 문제 삼는다”(황호덕, 2007: 169) 한문맥(漢文脈)을 제안하며 “한문맥의 문화적 권위에 의존해 작성된 국한문체의 헌법 안에 일본어와 구문맥(歐文脈)의 질서가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황호덕, 2007: 171)을 복합적으로 상기한다. 그렇다면 한국 학계는 ‘일본어와 구문맥(歐文脈)의 질서가 내포된 한문맥(漢文脈)’이라는, 우리말의 역사적 구성에 개입된 원초적 폭력을 문제 삼으면서 최근에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영어의 폭력에도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셈이다.

이렇게 복잡한 상황 속에 처한 한국어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많은 소수 언어들, 언어 본연의 창조적 활력을 상실한 채 기계적인 소통의 도구로 전락한 영어의 강력한 위협으로 인해 영영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다(에반스, 2012). 글로벌 영어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언어들 간에 문화들 간에 바람직한 소통과 교환을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하여 새로운 해석들을 적극 퍼뜨리는 번역은 자기갱신의 계기를 만들어 내는 저항과 보존의 공간으로서 적극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⁴⁾ 이러한 맥락에서 “번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대응은 지구화 시대에 삶의 질을 보전하고 확장하는 가장 중요한 계기 중의 하나”(윤지관, 2007: 22)로서, 인류의 문화를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담지한다. 이러한 지평에 자리 잡고 있는 번역은 그 목표를 ‘의미의 등가성’에 따른 의미의 단순한 옮김에 두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변적이고 불완전하더라도 의미들 사이의 끊임없는 만남, 충돌, 협상을 통한 21세기적 가치창출에 두도록 한다. 이러한 가치화 작업에 임하는 번역은 언어불평등, 계급불평등, 인종불평등, 젠더불평등이라는 문제를 사회화하

4) “한 언어가 죽으면 가능한 세계도 함께 죽는다... 파괴된 공동체의 내몰린 생존자들이 한 줌 밖에 안 되더라도, 그들에 의해 여전히 사용되는 그 한 언어는 ‘현실의 발견 및 재창조와 그 나름의 꿈의 가없는 가능성을 그 속에 간직하고 있다.’”(Steiner, 1997: xiv)

는 작업과도 연결된다.

전 지구에 팽배하는 영어 제국주의로 인한 소수언어들의 말살과 그에 따른 인종불평등이 가속화하는 현실의 역사적 기원과 현황을 자국어로 이해하고 또 그 이해를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것은, 그 현실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확장하는 문화적 실천을 수행하는 일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그러한 문화적 실천의 맥락과 번역은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번역과 문화의 관계는 벤야민의 번역 개념에서 출발해 데리다를 거쳐 바바의 ‘문화번역’ 개념이 진전되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파악될 수 있다. 그런데 거기서 젠더라는 문제의식은 빠져 있다. 20세기 후반에 우리의 지식과 인식 형성에 필요한 인식소로서 제시된 ‘젠더’가 번역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라는 문제제기는, 번역이 젠더와 만나야 하는 이유를 규명함과 동시에 번역과 젠더는 어떻게 만나야 할 것인가 하는 물음을 내포한다.

포스트식민주의 이론과 연계되어 있는 〈번역연구〉와 페미니즘 이론에 의해 촉발된 〈젠더연구〉는 따로 진행되다가 〈문화연구〉를 통해 가깝게 만나면서 두 영역의 연결을 시도하는 연구들(Simon, 1996; Flotow, 1997)이 나온 바 있다. 이러한 연구 동향에 관심을 갖고 “번역과 젠더를 만나게 하고 교차시키는 방법론”(박선주, 2012: 293)을 검토하여 본 결과, 그 방식은 1) 원전과 번역, 생산과 재생산, 창조와 모방이라는 틀에서 번역을 부차화, 여성화, 젠더화하여 온 과정, 즉 번역에 젠더정체성이 부여되어온 과정을 가리키는 ‘번역의 젠더화’(gendering translation) 2) 텍스트 속에서 번역되는 대상으로서 ‘젠더’의 주요양상에 초점을 맞추는 ‘젠더의 번역’(gender in translation)으로 나누어진다. 여기서 ‘번역의 젠더화’는 그 역사적 과정을 보건대 비판받아야 하고 극복되어야 할 단계이다. ‘젠더의 번역’은 텍스트 속에 기입되는 젠더화된 정체성의 다양한 양상들에 초점을 둬으로써 어디까지나 읽히는 대상으로서의 젠더적 측면, 즉 ‘번역된 젠더’의 양상에 국한된다. 그렇다면 번역을 젠더화하여온 역사적 현실에 대한

비판을 바탕으로, 번역되는 대상이나 주제로서의 '젠더화된 정체성'에 머물지 말고, 번역 자체의 방법론적 틀을 재구성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서 '젠더'를 적극적으로 위치시키는 '젠더번역'(gender-translation) 같은 것을 상정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에 따라 2장에서는 벤야민, 데리다, 바바의 번역 논의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3장에서는 그들에게서 생략된 '젠더' 논의 중에서도 먼저 번역이 젠더화되어온 역사적 과정, 즉 '번역의 젠더화'를 짚어본 다음, 번역되는(읽히는) 대상으로서의 젠더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번역된 젠더'의 양상을 살펴본다. 4장에서는 '번역의 젠더화', '번역된 젠더'라는 방식의 만남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는 일환으로 실제 번역(읽기)의 예를 통해 '젠더번역'의 이론적 윤곽을 도출하여 본다. 5장에서는 문화연구의 방법론으로서 '젠더번역'의 이론적 의의와 남은 문제를 언급할 것이다.

2. 번역에서 문화번역으로: 벤야민에서 바바까지

벤야민은 “번역가의 과제”라는 글에서 예술 작품의 수용자를 위한 의미 전달이라는, 통상적인 번역의 목적을 부인한다. 벤야민에게 번역은 원문의 의미를 그대로 모방하고 반복하는 작업, 즉 “원문의 의미에 동화”(벤야민, 1983: 257)되어 가는 작업이라기보다 “애정을 가지고 그리고 디테일한 부분까지 원문의 표현방식을 번역 언어 속에 체화”(벤야민, 1983: 257)하는 가운데 언어적 경계를 확장하고 심화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벤야민은 번역이라는 것을 간파하지 못할 정도로 목표 언어로 완벽하게 읽히는 번역물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 번역 중인 언어들의 ‘번역 불가능한 것’(이국성 foreignness)을 ‘잔여적 차이’로서 기입하는 행위를 번역이라고 본다. 유동적이고 움직이며 고정된 경계가 없는 언어 자체의 변형 행위에 관여하는 그러한 번역은 “두 죽은 언어 사이의 메마른 균등화”를 피하지 않으며 “인

간과 민족들 간의, 그리고 인간과 사물들 사이의 궁극적 소통을 향한 좀더 깊은 인류의 욕망”(윤성우, 2007: 19)을 실현한다.

벤야민은 이 욕망을 실현하는 ‘순수 언어’를 번역을 통해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번역가의 책무라고 흔히 이해되어온, 수용자를 의식한 단순한 의사소통, 메시지 전달, 의미의 복원을 벤야민이 비판하는 것도 번역의 목표를 ‘순수 언어’를 성취하는 데 두기 때문이다. 두 언어 간의 번역을 통해 옮겨져야 하는 것은 “거듭 지속적으로 새로워지고…가장 때늦게 그리고 가장 포괄적으로 자신을 전개하는”(벤야민, 1983: 247-8) 원작품의 생명이다. 다시 말해 벤야민의 번역은 원문과 동일한 어떤 것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원문의 어떤 것을 증폭하고 쇄신할 그 무엇”(윤성우, 2007: 183)을 목표언어에 담아냄으로써 차이를, 새로움을 기입하는 것이다. 그러한 번역은 원본 텍스트의 조화로우심을 깨뜨린 이후의 잔해들에 주목하는 가운데 “승리자의 항아리 속에 담을 수 없는 어떤 것”(정혜욱, 2010: 45)을 간파하여 새로운 언어로 옮겨냄으로써 폐쇄적이고 악순환적인 자기동일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다.

벤야민에 의해 새로운 차원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번역은 차연(différance), 흔적, 타자 등과 함께 데리다의 사유에서도 중요한 주제로 자리 잡고 있다. 데리다에게 언어의 의미형성 과정은 기표가 기의를 찾아 나서지만 둘의 만남은 계속 실패하는 과정의 연속이다. 시간 차이와 공간 차이로 말미암아 그 시도는 언제나 좌절한다. 따라서 기표는 자신을 다른 기표에 끊임 없이 이양함으로써 기의와의 완벽한 만남을 시도하지만, 이 이양의 과정 속에서 언어는 은유와 비유에, 인용과 번역에 자신을 개방할 수밖에 없다(정혜욱, 2010: 55-59). 데리다에게 기표와 기의 사이의 간극은 오히려 다양한 번역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으로 전환된다. 그렇게 개방된 번역은 하나의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의 ‘변형’(데리다, 1992: 20)을 가리킨다.

언어의 변형으로서 번역이 갖는 의미를 문화의 차원으로 넓히는 작업은, 번역을 식민주의 및 포스트식민주의 상황과 연결시키는 바바에 의해

수행된다.⁵⁾ 바바에게 번역은 원본을 단순히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움을 세계로 입장시키는' 방식이다. 여기서 '세계'는 주로 제3세계에서 제1세계로 이동한 이주민들의 세계인데 식민지 문화와 제국 문화가 섞이는 혼종적인 공간을 가리킨다. 바바는 제3의 혼종적인 문화공간이 갖는 의미를 규명하기 위해, 서로 다른 문화들을 번역 대상으로 놓고 분석하는 문화들의 번역 대신 '문화번역'(cultural translation)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문화번역' 개념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고 세련되며 영향력 있는 규정은 바바의 "새로움이 세계에 입장하는 방식: 포스트모던 공간, 포스트식민 시간, 문화번역의 시도"⁶⁾라는 글에 나온다. 이 논문의 제사(題詞)는 "번역은 동일성과 유사성의 추상적 개념들이 아니라 변형의 연속체를 통과한다"⁷⁾는 벤야민의 유명한 구절이다. 바바는 번역의 사후 삶(after-life)이라는 벤야민의 개념을 생존(sur-vivre, survival)으로 또 '경계에서 살아가는 행위'(the act of living on borderlines)로 번역하는 테리다를, 루쉬디(Rushdie)식 이주성과 혼종성이라는 전적으로 새로운 맥락에다 놓는다. 루쉬디는 이주민의 새로운 삶에 대한 꿈속에서 '경계에서 살아가는 행위'를 번역해 넣는다. 이러한 문화번역이야말로 두 언어, 두 문화 사이에서 '창발적 틈새', '힘을 주는 혼종성의 조건'을 가능하게 한다.⁸⁾ 그 원동력은 바바의 이주민에게 끝내 살아남는, 지배문화에 결코 동화될 수 없는 '잔여적

5) 니란자나(Niranjana, 1992)는 번역을 차연의 형식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문화적 저항의 수단으로서 강조하지만 주로 식민주의 맥락과 연결시키고 있다.

6) 바바의 『문화의 위치』 중 마지막에서 두 번째로 실려 있는 글(Bhabha, 1994: 212-235)의 제목("How newness enters the world: Postmodern space, postcolonial times and the trials of cultural translation")이다.

7) "Translation passes through continua of transformation, not abstract ideas of identity and similarity"(Bhabha, 1994: 212).

8) 이 중요한 대목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hybridity] is the dream of translation as "survival" as Derrida translated the "time" of Benjamin's concept of the after-life of translation, as *sur-vivre*, the act of living on borderlines. Rushdie translates this into the migrant's dream of survival; an *initiatory* interstice; an empowering condition of hybridity"(Bhabha, 1994: 226-7).

차이'에 있다. 바로 이 '잔여적 차이'가 차이들을 단순히 혼합하거나 융합하거나 해소하는 동질화를 막아주며, 변형 중인 언어들의 새로움을 세계에 입장시킨다.

바바의 '문화번역' 개념은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변형하는 실천으로서의 '번역'을 문화적 변화와 상호작용을 위한 좀더 일반적인 방법으로 이진한다(Young, 2012: 157). 바바에 이르러 번역은 두 다른 언어와 문화로부터 나온 텍스트들을 "인간의 이주성의 과정과 조건"(Trivedi, 2012: 5)으로 맥락화하는 방법이자 "이주민들의 행위들을 기술하는 하나의 개념"(Young, 2012: 161)으로 다시 발명된다. 트리베디는 번역의 개념과 실천에서 언어적 요소를 제거한 바바의 '문화번역'을 "도착문화에서의 이주민들의 파열된 삶의 경험을 기술하는 용어"(Bhabha, 1994: 5)로 보며, 영은 "출발문화가 아니라 도착문화를 변형하는 어떤 것"(Young, 2012: 163)으로 본다.

과거 인류학에서의 문화번역은 1세계 인류학자가 다른 문화의 특수성을 파괴하는 권력과 전유의 담론이었다. 반면, 바바의 포스트식민 담론에서 말하는 문화번역에서는 제3세계 '도착민'이 새로운 이주자가 되어 자신의 문화를 새 주인(host) 공동체 속(into) 번역해 넣는다. 바바에게 문화의 변형 주체는 이주민이며, 이제 지배문화가 이주민에 의해 문화적으로 번역된다. 이주민의 문화번역은 이주민에 의해 대면되는 헤게모니 문화에 개입하는 것이다. 거기서 일어나는 혼종화는 "상충하는 당대 문화들의 권력 역학 내부에서 개입하고 상호작용하는 행위능력적인 과정"⁹⁾을 포함한다. 그렇다면 이주민 문화번역의 핵심적인 양식으로서 '혼종화'는 포스트식민 시대의 새로운 주체형성을 정체성(identity)뿐만 아니라 행위능력(agency) 과도 결부시킨다. 그런 점에서 바바의 '문화번역'은 '차연의 형식' 또는 '은유로서의 번역'이라는 지평을 넘어설 뿐만 아니라, 이주민의 주체화 양식에 그치지 않고 지구화 시대의 서발턴(subaltern), 다중, 프레카리아트

9) "an agential process of intervention and interaction within the power dynamics of conflicting contemporary cultures"(Young, 2012: 160)

(precariat)와 같은 다양한 주체화 및 그 행위 양식들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의미 있는 '문화번역'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문화번역에 필수적인 인식소로서 '젠더'의 문제의식은 여전히 배제되고 있다. 이제 번역 혹은 문화번역을 젠더와 만나게 해야 할 시점이다.

3. 번역의 젠더화(Gendering translation)와 번역된 젠더(Translated Gender)

사실 그동안 번역과 젠더는 '번역의 젠더화'와 '번역된 젠더'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만나 왔다. 여기서 먼저 '번역의 젠더화'란, 원전과 번역본 사이에 함의된 위계적 불평등 관계를 젠더화으로써 이해하여온 유럽의 역사적 과정에서 명백하게 드러난다. 원전-번역본의 젠더화된 관계는 원전에 충실하지 못한 채 번역가의 재량을 지나치게 발휘한 허영심에 빠진 번역본을 '아름답지만 정조 없는 여자'(les belles infidèles)라고 칭한 비유에서 단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성별에 근거한 번역의 젠더화는 원전과 번역본 사이의 이분법적 경계를 내면화, 본질화함으로써 그 경계를 더욱 심화시킨다. 그리하여 원전-번역본에 부여된 젠더정체성과 성역할은 더욱 뚜렷하게 고착되고, 원전-번역본이라는 언어/문화적 정체성의 차별구조는 끈질기게 지속된다(박선주, 2012: 293). 원전과 번역본 사이에 “본질적이고 생물학적 차이가 설정되면 각각의 범주가 갖는 성격과 역할은 분명해지고, 또 범주와 범주 사이의 서열은 손쉽게 조율 통제”(박선주, 2012: 302)되기 때문이다.

그러한 차별구조에 따라 여하한 창조적 가능성은 부정된 채 원본의 모방, 차용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된 '번역'은 두 텍스트, 두 문필가에 국한되지 않고, 유럽의 팽창과 제국주의라는 역사적 맥락 속에서 구성되고

이동되고 확산되는 근대성 전반에 적용된다. 유럽과 비유럽, 제국과 식민지라는 두 공간 사이에서 제국에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산'의 남성 공간이, 식민지에는 비합리적이고 무질서한 '재생산'의 여성공간이 은연중 할당되는 젠더화가 수행되어 왔다(박선주, 2012: 297). 그리하여 유럽과 비유럽의 구별과 차이는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되지 않고 본질화되며, 유럽에 부여된 남성성은 유럽중심주의를 견고하게 유지하는 기제가 된다. 이러한 젠더화는 유럽과 비유럽 사이의 불평등한 권력구조 사이에서도 일어났던 다양하고도 복잡한 교류의 면면을 단순화하며, 두 시공간 사이의 권력에 대한 저항, 담합, 공모를 둘러싼 풍부한 의미와 영향의 파장 또한 은폐하는 결과를 빚는다.

유럽 중심으로 진행된 번역의 젠더화와 관련된 역사적 과정을 자세히 분석한 박선주의 논의에 따르면, 번역의 젠더화로써 야기된 단순화와 은폐보다 더욱 중요한 점은 '유럽적 젠더 개념의 보편화'이다. 유럽과 비유럽의 권력관계 속에서 비유럽으로 이동하는 유럽-원전들이 훨씬 많았고, 그 유럽-원전들에 각인되어 있는 젠더구분이나 성정체성을 이해하여온 유럽의 방식은 비유럽의 언어, 문화, 인식체계에 덧씌워지게 된다. 이렇게 편향된 번역이 계속 진행됨에 따라 결국 지극히 유럽적인(특수한) 젠더 개념이 지구 어느 곳에서나 동일하게 찾아볼 수 있는 지극히 보편적인 것으로 자리잡게 된다. 그러한 보편화야말로 비유럽-원전에 분명히 존재하여온 특수한 젠더화의 양상들을, 유럽적 어휘와 인식체계에 없거나 이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번역과정에서 과감하게 삭제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유럽과 비유럽 사이의 불균등한 힘의 논리에 따른 번역과정을 통해 세계 곳곳으로 이동된 '젠더'는, "유럽적 젠더 개념의 전지구적 동질화"라고 할 만한 결과를 낳았다. 이런 동질화는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와 같은 인도-유럽어 문화권에서 일어난 젠더화의 성격과 정도가 마치 비유럽 지역에서도 늘 똑같이 존재해왔다는 (잘못된) 인식, 즉 젠더는 전 세계 어느 곳에서건 보편적이고 동일한 것이라는 사고"(박선주, 2012: 307)를 형

성했던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젠더', '젠더화'라는 용어에 배어 있는 또 하나의 유럽 중심주의라는 페미니즘의 한계를 목도하게 된다.

이 한계를 비판하고 극복하기 위해 정체체성 혹은 '여성' 범주 자체에 대한 문제화를 통해 젠더정체성을 보편적이라거나 생물학적 자명성에 따른 고정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되며, 문화, 계급, 인종, 종교 등 다양한 요인과 특수한 맥락을 중시하는 차이의 페미니즘, 즉 포스트식민 페미니즘이 대두한다. 포스트식민 페미니즘에서 정체성을 구성하는 여러 축에 따라 여성들 사이의 차이들을 주시하지는 것은 "젠더개념의 동질화, 젠더범주의 보편화"(박선주, 2012: 308)를 경계하게 하면서 '여성'이라는 정체성 범주 자체의 근간에 있는 해석과 재현의 한계, 다시 말해 '번역불가능성'이라는 개념에 착안하게 한다. 그렇지만 그동안 익히 지적되어 왔듯이, 차이들 사이의 위계와 얽힘에 대한 정밀한 규명 없이 그저 나열되는 차이들의 강조는 젠더 범주, 특히 '여성'이라는 범주에 대한 이해 자체를 가로막아 왔다. 따라서 한 편으로 무수한 차이들을 지우고 포섭하며 유럽적 젠더를 획일적으로 강요하는 구도와, 다른 한편으로 차이들을 인식한다고 하면서 그저 무분별하게 확장하는 구도 둘 다를 경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계심을 유지하고 이분법적 구도의 난국을 헤쳐 나가게 하는 기반은, 유럽에서나 비유럽에서나 가부장적 의미체계가 표방하는 '남성성', '여성성' 자체가 역사적 구성물이며, "남성적 언어/담론이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조차도 자기 안에 있는 다양한 젠더적 성향을 삭제하고 재단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배제적 담론 공간"(박선주, 2012: 311-2)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의 젠더화 과정에 대한 비판적인 역사적 이해를 통해 얻어진 인식을 바탕으로, 이제 번역과 젠더가 만나는 또 하나의 방식으로서 젠더의 번역, 즉 작품 속에서 번역되고 있는 젠더라는 '번역된 젠더'(Translated Gender)의 양상을 살펴볼 차례이다. 이 양상은 젠더 혹은 젠더화된 정체성의 재현에 대한 작가의 의미부여를 중심으로 잘 파악될 수 있다. 예컨대 벵

콜 여성작가 마하스웨타 데비(Mahasweta Devi)의 「젓어미」(Stanadayini, Breast-Giver)에 대한 가야트리 스피박의 비평¹⁰⁾은 영국의 식민지였던 벵골이라는 나라가 독립 후 처한 곤경을 민족주의 시각에서 그린 알레고리라는 작가의 발언에서 출발한다. 3장 후반부에서는 데비에 의해 번역된 젠더를 읽어내는 스피박의 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스피박은 작가의 의도에 따라 벵골과 같은 제3세계의 서발턴(subaltern)¹¹⁾ 여성 삶을 통해 보여주고자 한 젠더화된 정체성의 양상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1960년대 벵골을 배경으로 하는 「젓어미」의 주인공은 자쇼다(Jashoda)라는 서발턴 여성이다. 그녀의 남편은 브라만 신분인데 가난한 계급이어서 노동을 해야 하는데도 사원에서 빈둥거릴 뿐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남편이 할다르(Haldar)라는 부유한 집의 막내아들의 차에 치여서 다리를 못 쓰게 되자 자쇼다가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몰린다. 젓먹이를 양육하는 자쇼다에게서 계속 나오는 젓이 필요하던 할다르 가는 자쇼다에게 유모라는 일거리를 주고, 자쇼다는 식구들을 먹여 살릴 수 있게 된다. 자쇼다는 자기 아이들과 주인 집 아이들까지 수없이 젓을 먹이다 보니 유방암에 걸리게 되는데 남편도, 자쇼다의 아이들도, 주인집 아이들도 자쇼다를 외면해 버리며 외롭게 홀로 죽어간다.

벵골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형성된 여성인 자쇼다는 “당신은 남편이고 힌두교의 지도자랍니다. 내가 잊어버리고 아니라고 말한다면 나를 바로잡아 주어야지요. 결국 고통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열매를 맺는

10) 가야트리 스피박, 『다른 세상에서』(태혜숙 옮김, 서울: 여이연, 2008)의 제14장 “하위주체의 문학적 재현: 제3세계 여성 텍스트”, 485-544 참조. 여기서의 인용은 본문 중에 쪽수만 표기함. 스피박은 벵골어로 된 소설을 영역하였으며 13장에 그 소설의 한글 번역본 「젓어미」(448-477)가 실려 있다.

11) 실체, 실질을 가리키는 substance의 sub와 대타성 alterity의 altern이 합성된 subaltern이라는 용어는 프롤레타리아트라는 남성노동자 중심의 계급 개념에 기반을 둔 주체 이해를 수정하고 확장한다. 오늘날 공장 노동자들, 농민들, 농업노동자들, 부족민들, 빈민들, 이주민들, 난민들, 프 레카리아트들을 망라하며 지구 곳곳에 편재하게 된 서발턴들은 사회의 실체이자 실질을 구성하는데도 타자의 위치로 밀쳐지고 ‘하위가 되어 보이지 않는’ 서발턴티티 상태에 있다.

나무도 고통을 느끼겠지요?”(스피박, 2008: 460)하고 말한다. 자쇼다는 전통적인 성별 노동분업도 받아들인다. “남자가 돈을 벌어오고 여자는 밥상을 차리는 거죠.”(스피박, 2008: 467) 그런데 이렇게 젠더화된 정체성 이해는 ‘라이온시티드’라는 벵골 여신에 대한 만연된 믿음에 의해 견고하게 유지된다. 어느 날 자쇼다가 자신을 쳐다보는 할다르 집안의 막내아들들에게 “행운아이신 우리 도련님, 도련님이 제 남편 다리를 치는 바람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되었지요. 그건 누구의 뜻이었을까요?”(스피박, 2008: 463)하고 묻자, 막내아들은 라이온시티드라고 답한다. 이 대목에서 보듯, 시선의 주체는 주인집 막내아들이고, 젖을 주고 있는 자쇼다는 그 시선의 대상일 뿐이다.

그런데 암에 걸려 외롭게 죽어간 자쇼다는 「젓어미」의 결말에서 “몸으로 나타난 신”(스피박, 2008: 483)이라고 언급된다. 자쇼다는 거룩한 아들에게 젖을 먹이는 신성한 (양)어머니로 신비화되고 치환된 채, 지배적인 여신 라이온시티드의 의지를 선포하는 존재인 할다르에 의해, 또 남편과 아들들에 의해 내내 착취되었을 뿐이다. 자쇼다는 자신보다 성, 계급의 축에서 우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몸과 노동을 내내 바쳤지만 그 점은 생략된다. 억울하게 병들어 죽은 자쇼다를 육신을 띤 신이라고 미화하는 결말은, 젠더화된 서발턴 여성의 몸과 노동을 은폐하는 전형적인 남성 민족주의 태도를 그대로 드러낸다. 이러한 태도는 벵골에 특수한 정체성이나 행위능력의 새로운 지평을 보여주려는 커녕, 젠더화된 정체성 이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벵골 단편소설 읽기를 통해 본 ‘번역된 젠더’는 작품에서 읽히고 번역되는 대상으로서 젠더화 과정에 주안점을 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번역과 젠더의 만남에서 방점은 젠더라기보다 여전히 번역에 주어져 있다. 그런 점에서 ‘번역된 젠더’는 3장의 앞부분에서 살펴본 ‘번역의 젠더화’와 견주어 볼 때, 번역중심이라는 면에서 크게 달라진 바 없다. 벵골 단편 소설에 이렇게 번역된 젠더는 벵골어와 같은 소수 언어로 된

‘텍스트의 특별한 부름’에 반응하는 “가장 친밀한 읽기행위”(스피박, 2006: 338)라는 번역 층위와는 거리가 멀다. 스피박이 번역의 이런 층위를 강조하는 것은, ‘텍스트의 특별한 부름’을 제대로 파악하는 인식적 감성적 반응 능력, 읽기능력(literacy)도 전혀 없이 현재의 영어헤게모니에 지배되어 종종 자신들의 무지한 선의를 3세계 텍스트들에 발휘하는 메트로폴리탄 페미니스트들의 손쉬운, 무차별적, 신식민주의적, 동화주의적 번역물이 서구 출판계에 만연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피박은 번역되는 텍스트의 언어와 역자의 언어는 서로 공유할 수 없는 다른 언어학적 구성 체계를 갖고 있으며 원전의 수사학적 본성은 물론, 수사학적 침묵까지도 고려한다는 관점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긴다. 바로 그러한 관점에서 스피박은 작가의 결을 거스르며 벵골 소설들을 계속해서 새로 번역하며 다시 읽는다. 바로 그러한 스피박의 복합적인 읽기 과정은 ‘젠더번역’이라는 이론적이고 방법론적인 지평을 창안하게 한다.

4. ‘젠더번역’(Gender-Translation)이라는 이론적 방법론적 지평

4장에서는 번역과 젠더의 만남을 번역 중심성을 견지하면서 젠더, 젠더화를 끌어들이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 젠더로써 재구축되는 번역, 번역으로써 재구축되는 젠더라는 양방향의 상호간섭적 읽기로서 ‘젠더번역’의 이론적 방법론적 지평을 스피박의 읽기로부터 도출하여 보고자 한다. 마하스웨타 데비는 자신의 단편 소설에 대해 민족주의적 우화라는 맥락을 스스로 천명했지만, 다른 여러 의미들이 텍스트를 배회하고 있으며 텍스트에 각인되어 있다. 그렇게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다양한 의미층위들이야말로

벵골 단편소설의 영어 번역 또는 한글 번역에 '새로움'을 기입할 수 있게 하며, 벵골 서발턴들의 다른 세상에서 협상중인 특이한 젠더화 과정들을 읽어내게 하는 방법론으로서 '젠더번역'을 주장할 수 있게 한다.

「젓어미」에 대한 스피박의 분석은 3장 후반부에서 언급된 '번역된 젠더'의 양상과 함께 다른 한편으로 1) 기존 젠더관계의 외부에 있으면서 그 젠더화를 전복하고 넘어서는 숲에 사는 아줌마들의 세상, 2) 여성기관을 제공하는 사람이라는 소설 제목 자체의 특수성, 3) 여성의 성적 쾌락과 관련된 주방아줌마 이야기, 4) 지식의 대상이 아니라 지식의 장소로서 여성 육체라는 네 가지 의미영역을 규명하고 있다. 바로 이 새로운 의미영역들이 야말로 잔여적 차이로서, '젠더번역'의 수행적 실천을 가능하게 하며 '젠더번역'의 이론적 방법론적 가능성을 예시한다.

「젓어미」의 맨 앞부분인 제사(題辭)¹²⁾에 나오는, 어머니 없이 기존 혈연관계와 가부장적 관계를 넘어서 있는 세계의 양어머니는 자쇼다와 같은 젠더화된 서발턴 벵골 여성의 비참한 최후라는 결말을 거스르는 전혀 다른 틀을 제시한다. 텍스트의 제사(題辭)에 나오는 첫 단어는 어머니가 아니라 아줌마들, 그것도 결혼관계에 의해서가 아니라 혈연이 기입되기 이전 단계에 머물러 있는 아줌마들, 자연과 문화의 경계에 머물며 반건—숲과 촌락을 찬양하는 이름—에 사는, 이름 없는 부모의 자매들을 일컫는다(스피박, 2008: 540-1). 어머니로서의 실패를 자세히 이야기하는 자쇼다의 서사와 다른 한편에서 전개되는, 신기한 양아줌마들의 대항서사는 기존 젠더화를 넘어서며 기왕의 자본주의적 가부장 체제 내부의 외부를 각인함으로써, 유럽의 젠더화된 정체성 이해를 중심으로 '번역된 젠더'의 양상을 둘러싼 우리 해석의 안정된 일관성을 위협한다.

다음으로 소설 제목(Breast-Giver)은 수동적으로 젓을 물리는 유모라는

12) “나의 아줌마들은 숲에서 살았다. 숲 속에다 자기들 집을 지었다. 아줌마는 애야, 부드러운 사슴 고기가, 빵 한 조각이 여기 있으니 먹으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스피박, 2008: 448).

단어에 통상 함축되어 있던 의미망들을 해체하고 전복한다. 상품화된 노동력이자 소외된 생산수단인 유모의 젓가슴은 특정한 젠더 구분과 젠더 역할을 지속시켜 왔다. 그러한 유모라는 일상적인 용어 대신 ‘젓가슴을 베푸는 자’라는 신조어는 젓가슴을 주체적으로 세상에 제공하여 세상을 양육하는 사람이라는 주체화 양식을 내포함으로써 여성을 강고하게 둘러싸고 있는 기존의 젠더화된 정체성 자체를 비틀고 흔든다. 이 신조어의 격렬함으로 말미암아 ‘암’은 서발턴 여성 유모에게 국한되지 않고, 젠더화된 서발턴 전체의 억압을 나타내는 기표가 된다. ‘암’은 젓가슴을 제공하는 사람을 소모시키고, 타자들은 그 젓가슴에 얽혀 기생하며 먹고산다. 그리하여 이 소설은 여성기관을 여성에 특수하게 있는 것으로 부분화하는 대신, 젓가슴을 제공하는 자와 그 젓가슴을 소모시키고 희생시키는 암을 형상화함으로써 젠더화된 남성성 혹은 여성성 이해에 국한된 유럽적 젠더인식을 넘어서는 특이한 뱅골 세계를 그려준다.¹³⁾

또한 주변적인 것이라고 젓혀질 법한 주방 아줌마 이야기는 좁은 의미에서의 여성의 열락(悅樂, *juissance*)이 갖는 불가사의함이라는 의미영역을 제시한다. 할다르 집안의 부랑아 막내아들이 주방 아줌마를 덮쳤고, 그 후 음식을 잔뜩 갖다 주곤 하면서 엄마한테 말하지 말아달라고 하는데 “말할 게 뭐가 있는데?”라고 아줌마가 되받아친다. 그런 성행위에 대해 아줌마가 무심하게 대하니까 오히려 막내아들은 굉장히 황당해한다. 이러한 무심함이 지닌 이상한 힘을 그려주는 「젓어미」의 측면에 착안하는 것은 유럽적 젠더관계에서의 섹슈얼리티 관념을 훌쩍 뛰어넘는 작품의 특이한 결을 새로 번역해내는 셈이 된다.

마지막으로 유럽적 젠더 관계라는 고정된 틀을 훌어버리는 듯한 「젓어미」의 특수한 젠더화 과정들은 유럽의 역사보다 훨씬 더 큰 역사에 민감하도록 만들어준다. 유럽에 결박되지 않은 더 큰 역사 속에서 자소다의 육

13) 따라서 소설 제목(Breast-Giver)를 ‘젓어미’라고 번역한 것은 오역이며 뱅골의 특이성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

체는 앎의 도구 수준이라기보다 지식의 장소가 된다. 자쇼다의 육체는 젓을 먹이고 양육하는 유모노릇이 실패했다는, 탈식민화에 관한 음험한 지식을 드러내는 장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 역할로 말미암아 유럽 페미니즘의 핵심인 소위 음핵 오르가즘¹⁴⁾의 특이성과는 거리가 먼 초과로서 '앎'이 소설 속에 재현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자쇼다의 육체는 성적 대상이나 여성의 개인적 소유물에 그치지 않고 유럽제국주의나 제3세계 민족주의보다 더 큰 다른 역사 속에서 그동안 말할 수 없었던 무수한 타자들이 말할 수 있을 법한 장소의 역할을 한다. “아이에게 젓을 물리면 어머니라고, 말짱 거짓말이야, …자쇼다의 젓가슴에 물려오는 고통은 수많은 입들과, 수많은 눈들과 함께 그녀를 계속 조롱하고 있었다.”(스피박, 2008: 476)는 비밀스런 문장은 바로 그 무수한 타자들의 타자로부터 말하기를 기록한다. 이로써 「젓어미」는 “(남성의) 정신에서의 초월가능성이 아니라 (여성의) 육체에서의 타자의 (비)형상화를 통해 [지식의 한계를 둘러싼 지식의 역설에 대한] 여성의 접근을 긍정” (스피박, 2008: 530-531)하는 새로운 층위의 의미와 해석을 펴뜨리는 효과를 거둔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스피박의 읽기는 남녀관계를 유럽적 젠더 개념과는 다른 인식체계로써 이해하는 비유럽 텍스트를 발굴하여 유럽적 ‘젠더’가 벵골 소설에서 어떻게 전위되고 번역되고 있는지를 밝힘으로써 거기 내장되어 있는 젠더에 대한 새로운 인식들을 가시화하는 작업으로 나아간 셈이다.

14) 특히 프랑스 페미니즘에서 주장된, 남성중심의 쾌락 원리와 다르며 그것을 허물어뜨릴 수 있는 여성 특유의 욕망 구조를 가리킨다.

5. ‘젠더번역’의 개념화와 남은 문제들

벵골 단편 소설에 대한 스피박의 읽기 혹은 번역에서 젠더는 ‘번역된 젠더’에서와 달리 그저 읽히는 대상 수준이 아니라 읽기/번역에 처음부터 간섭하는 인식소(혹은 방법론적 틀)로서 자리매김된다. 사실 번역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번역이론이 활성화되기 이전에, 번역은 창조에 못 미치는 아류로 이차적이며 여성적인 무가치한 것이라는 관념과 함께,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가 동등하게 교환된다는/될 수 있다는 인식, 즉 등가성(equivalence)이라는 관념에 주로 기반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앞서 벤야민을 비롯해 데리다, 바바의 이론을 통해 진전된 최근의 번역 논의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서로 다른 두 언어와 문화는 등가적이지 않으며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들 사이의 교류도 등가적이지 않다. 유럽에 대한 비유럽의 ‘등가성’이라는 것 자체가 번역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식민주의로부터 만들어진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번역은 서로 다른 언어/문화의 등가를 찾아 “원래 의미를 그대로 ‘옮기는’ 행위라기보다, 언어/문화 간의 불균등한 권력관계로부터 가치를 협상하고 ‘창출’해내는 행위”(박선주, 2012: 312)로써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가치창출 행위로서 번역은 그 핵심 범주로서 ‘젠더’의 의미와 가치를 처음부터 끌어안으면서 그동안의 유럽 제국주의, 또 그 역전된 형태인 제3세계 민족주의라는 역사적 과정을 통해 비유럽 언어체계에 덧씌워진 유럽적 ‘여성성’과 ‘남성성’을 불완전하고 가변적인 것으로 노출시킨다. 그러한 측면에서의 ‘젠더번역’은 번역에 젠더라는 문제들을 체계적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입시키는, 말하자면 번역을 젠더로써 재구축하는 것이다.

이처럼 ‘젠더번역’의 한 가지 방향으로서 번역에 대한 젠더의 지속적 간섭은 젠더를 통해 번역을 심문하는 것이다. ‘젠더번역’은 그동안 제대로 번역되지 못한 것에 대한 침묵을 거부하고 단일한 일방적인 읽기가 배제한 결들을 포착하기 위해 젠더라는 이론적 틀로써 그 결들을 본격적으로 풀

어헤치는 읽기를 수행하는 방법론이다. 그러한 '젠더번역'은 해당 번역물에서 은폐되고 침묵된 부분을 체계적으로 드러냄으로써 번역이라는 문화적 행위의 의미와 가치를 풍부하게 하는 방법론이 될 수 있다.

그것과 동시에 '젠더번역'의 또 다른 한 가지 방향은 번역을 통해 원본을 반복, 모방하는 가운데 젠더 자체를 질문함으로써 젠더 인식의 차이를 새로움으로서 기입하고자 한다. 말하자면 젠더를 번역으로써 재구축한다. 번역으로써 재구축되는 젠더의 새로운 공간은 뒤늦은 모방 중에 그 아이러니하고 전복적인 요소를 담아냄으로써 문화적 차이를 각인하는 '창발적 틈새'(initiatory interstice)가 된다. 이 틈새야말로 무엇인가를 창출하는 힘을 갖는 제3의 공간으로서 21세기적 가치창출에 임하는 새로운 인문적 주체의 형성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양방향으로 왕복하는 문화적 실천으로서 '젠더번역'은 수동적, 사물화된, 부차적, 반복적 읽기가 아니라, 치열하고도 전복적이며 격정적인 읽기를 수행한다. '젠더번역'은 격렬한 문화적 번역행위와 부단한 젠더라는 인식소를 결합시키는 방법론을 일컫는다. 젠더와 번역의 밀접한 상호침투, 역동적인 상호횡단, 치밀한 상호교차를 적극 모색하는 '젠더번역'은 단순히 젠더화된 정체성(gendered identity)의 양상을 드러내는 데 그치지 않고 젠더화된 행위능력(gendered agency)의 작동과정을 해명하고 거기에 개입하는 데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러한 방향성을 갖는 '젠더번역'은 현 지구적 자본주의 가부장제 사회에서 요청되는 문화연구의 방법론으로서, 새로운 문화주체를 생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읽기와 실천의 방법론으로서 제안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제안을 좀 더 유효하기 만들기 위해 '젠더번역'은 1) 젠더라는 용어가 섹슈얼리티를 배제하지 않도록 하는 문제, 2) '젠더번역'이라는 용어에 계급적 인종적으로 특수한 젠더화 과정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는 문제, 3) '젠더번역'을 통해 계급불평등, 인종불평등, 종 불평등이라는 현실인식을 사회화하는 문제, 4) 소수 언어들을 집어삼키는 글로벌 영어에 의해 사멸

되고 있는 지구상의 많은 토착어들을 생존시켜 언어불평등을 해소하는 문제 등을 늘 함께 안고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러한 문제들의 지평을 구체화하기 위해 남녀관계를 유럽적 젠더 개념과는 다른 인식체계로써 재현하는 비유럽 및 유럽 텍스트들을 발굴하고 번역하고 새로 읽어내는 문화연구는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데리다, 자끄(1992), “기호학과 그라마톨로지”, 『자끄 데리다: 입장들』, 박성창 편역, 서울: 도서출판 솔, Derrida J.(1982), *Positions: Jacques Derrida*,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리쾨르, 폴(2006), 『번역론: 번역에 관한 철학적 성찰』, 윤성우·이향 옮김. 서울: 철학과현실사, Ricoeur, P.(2004), *Sur la traduction*, Paris: Bayard.
- 박선주(2012), “(부)적절한 만남: 번역의 젠더, 젠더의 번역”, 영미문학연구회, 『안과 밖』, 제23권 3호, 289-325쪽.
- 벤야민, 발터(1983), 『발터 벤야민의 문예이론』, 반성완 편역, 서울: 민음사.
- 스피박, 가야트리(2006), 『교육기계 안의 바깥에서』, 태혜숙 옮김, 서울: 갈무리, Spivak, G.(1993), *Outside in the Teaching Machine*, New York: Routledge.
- _____ (2008), 『다른 세상에서: 문화정치학 에세이』, 태혜숙 옮김, 서울: 여이연, Spivak, G.(1987), *In Other World: Essays in Cultural Politics*, New York: Routledge.
- 에반스, 니컬러스(2012),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죽다—사라지는 언어에 대한 가슴 아픈 탐사보고서』, 김기혁·호정은 옮김, 서울: 글항아리, Evans, N.(2009), *Dying Words*, London: Wiley-Blackwell.
- 윤성우(2007), “발터 벤야민(W. Benjamin)의 번역론에 관한 소고”, 한국번역학회, 『번역학 연구』, 제8권 1호, 175-191쪽.
- 윤지관(2007), “번역의 정치성과 사회적 기능”, 한국번역비평학회, 『번역비평』 창간호, 13-23쪽.
- 정선태(2007), “번역 또는 식민주의를 ‘애도’하는 방법”, 한국번역비평학회, 『번역비평』 창간호, 151-162쪽.

- 정혜옥(2010), 『번역과 문화연구』, 부산: 경성대학교 출판부.
- 황호덕(2007), “번역의 근대, 한문맥의 근대”, 한국번역비평학회, 『번역비평』, 창간호, 163-185쪽.
- Bhabha, H. K.(1994), *The Location of Culture*, New York: Routledge.
- Flotow, L. V.(1997), *Translation and Gender: Translating in the ‘Era of Feminism’*, Ottawa: University of Ottawa Press.
- Niranjana, T.(1992), *Siting Translation: History, Post-Structuralism, and the Colonial Context*,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Robinson, D.(1997), *Translation and Empire: Postcolonial Theories Explained*, Manchester: St. Jerome Publishing.
- Simon, Sherry(1996), *Gender in Translation*, New York: Routledge.
- Steiner, G.(1997), *After Babel: Aspects of Language and Transl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Trivedi, H. (2012), “Translating Culture vs. Cultural Translation,” iwip International Writing Program, The University of Iowa, n.d. Web. Retrieved on 13 Oct. 2012. <<http://iwip.uiowa.edu/91st/vol4-nl/pdfs/trivedi.pdf>>.
- Young, R.(2012), “Cultural Translation as Hybridization,” *Trans-Humanities*, 5(1), pp.155-174.

〈Abstract〉

Exploring 'Gender-Translation' as a Research Methodology for Cultural Studies

Tae, Heasook*

This paper aims at exploring the theoretical terrains of 'gender-translation' as a research methodology for cultural studies. To do that, first, I criticize the tendencies of ignoring 'translation' as something secondary to and dependent on the original text and examine the cultural/translation theories of Walter Benjamin, Jacques Derrida, Homi Bhabha, and Robert Young. In spite of their developed discussions in the context of 'cultural translation', the problematics of gender is consistently omitted. There have been two ways of connecting translation and gender: 'gendering translation' and 'gendered translation'. The former tends to criticizing the historical phenomenon of 'gendering translation' while the latter merely mentions the aspects of 'gendered translation' in the texts concerned. Those limitations incite us to invent a new concept, such as 'gender-translation.' It attempts to intervene the translation persistently through the epistemological and methodological frame of gender, and critically reconstructs both gender and translation at the same time. As Gayatri Spivak's translation of a Bengalese short novel "Breast-Giver" prefigures, 'gender-translation' is to combine the insurgent activity of cultural translation with the incessant episteme of gender.

Key words: Cultural Translation, Gender, Gender-Translation, Cultural Studies, 「Breast-Giver」

* Professor, Dept. of English Literature,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